

광주시,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제출... 오늘 시의회 임시회서 처리 지원 대상·산업단지 조성 관리 등 담야

한국전력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을 지원할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에너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을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원 사항, 협력체계, 산업단

지 조성·관리, 공무원의 사업기관 파견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에너지 산업 관련 유망기업과 전문 연구기관 유치, 에너지 관련 집적화단지·기업·지원기관 클러스터 조성, 한전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산업 육성, 기술개발, 창업·보육 등 관련 사

업이다.
시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업단지 조성 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혁신도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명시화했다.
시장은 경비와 사업비를 출연했을때 감사·지도와 보고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권도 부여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오는 6일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열리는 데다, 본회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임시회 첫날인 6일 1차 본회의에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처리를 한 뒤 2차 본회의가 시작되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올해 하반기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산가족 생사 확인서 교환 남과 북 관계자들이 5일 판문점에서 이달 20일과 26일 사이 예정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허성관 원장 임용 여부 2~3주 더 걸릴 듯

과거 행적 등 반대 여론 ... 이사회, 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의 최종 임용 여부를 놓고 이사회가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청문회에서 준비 미흡, 지역 내 현안 미파악 등이 지적된데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일부 반대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 출범이 상당기간 연기될 수밖에 없는데다 마땅한 적임자가 공모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어 당분간 진상 파악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5일 오전 광주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이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허 후보자와 관

련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원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이다. 시·도 기획조정실장, 송광문 광주시 북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 등 4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14명은 외부 인사다. 일부 이사는 "입장이 난처하다"며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삼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이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으며, 허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의 진위를 좀 더 파악하고, 시·도의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허 후보자의 임용 여부 결정은 2~3주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청문회 보고서에서 허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일부 단체들은 허 후보자가 행정자치부장관 시절 공무원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용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및 특혜, 증여세 미납 등 일부 의혹은 허 후보자의 추가 소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화물차 불법 신고 포상금 추진 김민중 시의원 조례안 발의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광주에서 추진된다. 광주시의회 김민중(광산 4) 의원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사례에는 10만원, 사업자가 직접 운송해야 할 화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1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 이내에서 회수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기 내 무등산 군부대 이전 도시철도 건설비용 절감 최선” 윤장현 시장 위암수술 후 첫 간부회의



위암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감회의(정례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복귀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입원해 있는 10여일 동안 광주가 많이 그리웠고, 광주로 일찍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시장인 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특히 SNS를 통해 발병 사실과 수술을 앞둔 심경, 진행상황 등을 알린 것에 대해 “시장인 저는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살림을 맡긴 일꾼이 어떤 상황을 인지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일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손길,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날 행사에서 임기 내 무등산 군부대를 이전해 광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무등산 정상에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자는 다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도시철도와 순환도로 소송 등 지역 현안들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했으며, 행정이 정직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도시철도는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 등을 통해 건설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0·28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6~10일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받겠다고 5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 요양소,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10월 23~24일) 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 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www.nec.go.kr)와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함평 동의원과 목포 및 신안 기초의원 등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완도·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선정

전남도는 나주시 종합스포츠타코프, 완도군 소안도 주민 공동시설, 진도군 조도면 관내 5개 섬이 정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016년 예비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같은 장소에 태양광·풍력 등 2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해 도서 지역 에너지 자립 등 에너지원간 융합사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보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고 나주시·완도군·진도군과 민간기업이 참여해 내년 1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업협약 후 내년 연말까지 사업비 29억7400만원을 들여 추진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스마일 라식

라식과 라섹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정확성이 높은 미래형 차세대 시력교정술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더욱 뚜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내용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